

「周生傳」의 서사구조와 性모랄

余 世 柱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애정 구현의 양상과 의의 |
| II. 서사구조의 연속성과 의미 | 1. 애정 구현의 성격과 性모랄 |
| 1. 작품의 구성과 사건의 개연성 | 2. 애정 구현 양상의 소설사적 의의 |
| 2. 제도권 진입욕구와 애정욕구의 관계 | IV. 결 론 |

I. 서 론

「주생전」은 石洲 權輶(1569~1612)의 한문소설이다. 李明善이 『朝鮮文學史』 연표¹⁾에서 이 작품의 작가를 권필이라 규정하고, 金九經 소장본을 원문과 함께 번역하여 소개한 문선규²⁾도 「주생전」은 권필의 작품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이 작품이 권필의 작품임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증명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재영이 가장 먼저 권필의 삶과 「주생전」의 상관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권필 창작설을 해명하려고 했다³⁾, 그리고 왕숙의는 권필의 시 「送妻鳳鳴還杭州錢塘

1) 李明善, 『朝鮮文學史』(朝鮮文學社, 1948.) 169쪽. 이 책의 영인본이 汎友文庫 89(汎友社, 1990.)로 나와 있다.

2) 文琰奎 譯, 『花史 周生傳 鼠大洲傳』, 通文館, 1961.

3) 蘇在英, 「權輶과 그의 文學」, 『古小說通論』, 이우출판사, 1983.

縣」에 나타나 있는 ‘錢塘’이나 ‘湧金門’이란 지명이 「주생전」의 주인공인 주생의 고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⁴⁾을, 이종묵은 권필의 문집에 들어 있는 시나 詞의 정조가 「주생전」에 들어 있는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⁵⁾을 들어 권필 창작설을 실증하고자 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발행의 『림제·권필작품선집』⁶⁾이 학계에 소개됨으로써 「주생전」의 작가를 확정짓는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었다. 즉, 필사본이라고 밝히면서 실어 놓은 「주생전」 말미의 ‘癸巳仲夏無言者權汝章記’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 기록의 癸巳年은 1593년이고 汝章은 권필의 字이다. 따라서, 이 기록을 부정할 만한 확고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주생전」은 1593년에 권필이 지은 소설이란 판정이 유효하다.

창작연대가 그렇다면, 작자가 癸巳年(1593)에 周生이라는 실존 인물을 만나 직접 들은 바를 토대로 이 소설을 창작했다는 작품 마지막 부분의 서술도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에 작가가 어떤 일로 松京에 갔다가 이여송 도독의 유격장군 막하에서 서기로 일하던 주생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 그의 체험을 듣고 감동되어 이 작품을 지었다고 했다⁷⁾. 작품 마지막의 이러한 서술을 굳이 假托이나 액자소설 형태의 위장이라고⁸⁾ 볼 필요는 없다. 가탁의 수법을 써서 의도적으로 위장해야 할 까닭이 이 작품의 어디에서도 찾아지지 않기 때문

4) 王淑誼, “周生傳의 比較文學的 考察”(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6.) 7쪽.

5) 이종묵, “〈주생전〉의 미학과 그 의미”, 관악어문학연구 제16집(서울대 국문과, 1991.) 172~176 쪽 참조.

6) 리철화 역, 림제·권필작품선집, 조선고전문학선집 13,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7) 周生傳, 한국한문소설전집 7권(林明德 編, 중국문화학원, 1986) 364~365쪽 참조. 앞로의 작품 인용은 모두 이 책에 의거함.

8) 蘇在英(위의 논문, 위의 책, 158쪽)은 소설 마지막 부분의 이러한 진술을 작자의 假托으로 보고 있고, 金梓洙(“주생전” 연구, 한국언어문학 21집, 1982)도 이러한 입장에서 이 부분을 외부 액자로 보고 있다.

이다.

「주생전」은 주인공의 표류하는 삶의 역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삶의 과정 속에는 제도권 진입 욕구와 애정 욕구가 심리변화에 따라 분출되어 있다. 이 두 욕구가 서로 미묘하게 맞물리면서 좌절을 가져오고, 이러한 과정이 비극적 삶의 역정으로 구축되면서 구조화된다.

따라서 애정 갈등만을 강조하여 작품을 읽게 되면 제도권에의 진입 갈등이 드러날 수 없으며, 제도권에의 진입 갈등만을 강조하여 작품을 분석하게 되면 애정소설로서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주생전」을 일관성 있게 독서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얹어져 있는 이 두 갈등의 관계 양상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이 그러했듯이, 제도권 진입 욕구 쪽에만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을 해석한다면, 사건의 논리적 연속성이나 의미론적 구조는 물론 작품의 주제 또한 오도될 소지가 없지 않다.

이 논문은 선행 연구에 힘입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되, 사건의 의미론적 연속성을 해명하면서 작품의 객관적 의미를 찾아보고, 이 작품이 애정소설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성모랄의 성격을 밝혀 보고자 한다. 작품의 의미를 찾는 가운데 작품 구성의 특징도 분석될 것이며, 성모랄의 특징 분석을 통해 작품의 소설사적 위상 규명도 어느정도 가능하리라 믿어지기 때문이다.

II. 서사구조의 연속성과 의미

1. 작품의 구성과 사건의 개연성

작자의 표면적 의도가 작품의 객관적 의미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도 있다. ‘의도된 차원’과 ‘표출된 차원’이 모든 작품에서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해석은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의도된 차원의 의미 해석과 표출된 차원의 의미 해석이 그것이다.

어느 것이 작품의 진정한 의미인가를 따질 필요는 없다. 작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의도된 차원의 의미가 작품의 진정한 의미이고, 독자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표출된 차원의 의미가 작품의 궁극적 의미일 수 있다. 문학 작품은 이미 발표된 이상 작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독자만의 독점물도 아니다. 문학 작품은 작가의 것이기도 하고 독자의 것이기도 하다. 작가와 독자 사이의 등거리에 문학 작품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차원 모두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 작품은 사회 현실의 우연적인 표출 현상이 아니며, 소설가의 세계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된 미학적 양식이다. 소설가는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사회현실에 형식을 주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다면, 작가가 작품에서 다루고자 한 내용과 관점이 서술 문면상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경우, 이를 가닥으로 삼아 소설의 의미를 해명해 나가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고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내가 어떤 일로 송경에 갔다가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글로써 뜻을 주고 받았다. 주생은 내가 글을 안다고 매우 후하게 대접했다. 나는 그에게 병든 이유를 물었보았다. 그러나 수심에 잠긴 채 응답이 없었다. 이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나는 주생과 더불어 불을 밝히고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생은 답사행 한 수를 지어 보여주었다. …(중략)…나는 몇 번이나 이 사를 놓지 않고 읊었다. 그리고 사 중의 정사를 탐문했다. 주생은 감추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말하지 말라며 당부까지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사를 부러워 하며 이들의 기이한 만남을 한탄하고 아름다운 기약을 슬프게 여겨, 헤어진 후 붓을 잡아 그 이야기를 쓰지 않을 수 없었다.(余適以事往于松京 遇生於館驛之中 語言不動 以書通情 生以余解文 待之甚厚 余詢其致病之由 愀然不答 是日有雨 乃與生長燈夜話 生以踏沙行一闕示余…(中略) …余再三諷詠其詞不置 因探詞中情事 生於是不敢諱 從頭至尾細說如右 因曰 幸勿爲外人道也 以斲其詩詞 歎奇遇而愴佳期 退而援筆述之于爾. 364-365쪽)

작자가 「주생전」을 짓지 않을 수 없었던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들의 기이한 만남을 한탄하고 아름다운 기약을 슬프게 여겨’ 「주생전」을 썼다고 한 것이 작자가 드러낸 창작의도이다. 실제 작품에서도 ‘주생과 배도와의 기이한 만남, 그리고 주생과 선화와의 아름다운 기약’으로 야기되는 애정갈등이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작품 줄거리를 몇 개의 단락으로 정리해 보면, 애정 사건만이 존재하는 것만도 아님을 알 수 있고, 그러함에 따라 독자에게 전달되는 작품의 의미도 애정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

가) 주생은 어려서부터 총명·영민했으며, 태학생이 되어서도 제주와 학문이 남에게 뒤지지 않아 동배들의 추앙을 받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었다.

나) 과거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번번히 낙방한 나머지 아예 科業을 포기해 버리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닌다.

다) ①고향에 들렀다가 기녀가 된 배도를 만나 장래를 약속하고 함께 머문다. ②어느날, 배도가 평소 드나들던 노승상택 딸 선화를 보고 반하여 연모하던 중 선화의 동생 국영의 스승이 되어 노승상택으로 거처를 옮기고, 선화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라) 이 사실을 알게 된 배도가 상심 끝에 죽게 되고 국영도 우연히 병사하게 되자, 주생은 기거할 곳이 없어 외척 장노인덕을 찾아간다.

마) 주생이 선화를 잊지 못해 병이 나자, 장노인은 노승상 댁과 평소 교분이 있는 부인을 내세워 선화와의 혼인을 허락받고, 주생은 혼인날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바) 조선 원병으로 징발되어 조선까지 왔다가 병이 깊어져 종군하지 못하고 송경에 머물게 된다.

단락별로 정리된 작품 내용을 통해 볼 때, 전체적인 줄거리가 주인공 주생의 인생 역정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락 가)와 나), 다)와 라), 마)와 바)가 그것이다. 단락 가)와 나)는 주로 설명적 서술을 통해 압축해서 제시되어 있고, 단락 다)에서 바)에 이르는 사건들은 묘사적 서술을 통해 확대해서 제시되고 있다. 작품에 따라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⁹⁾ 「주생전」의 경우, 전개되는 사건의 논리적·의미론적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가)와 나) 단락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 기능을 지닌다.

사건구조는 규칙적 반복을 특성으로 삼는다는 그레마스의 말¹⁰⁾을 꼭히 빌리지 않더라도, 「주생전」의 전체적 사건 전개는 '희망과 좌절'의 순환적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품 서두에서 제시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건들이 전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

9) 월로미드 리몬-케넌은, “통상 중요한 사건이나 대화는 상세하게 제시되고 덜 중요한 것은 압축된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간결하게 요약하거나 하찮은 사건들을 상세하게 다룸으로써 충격이나 아이러니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 S.리몬-케넌, 소설의 시학(최상규 역, 문학과 지성사, 1985.) 87~88쪽.

10) 서사구조는 눈에 띄게 반복적인 특성을 드러내 보이며, 이 반복성은 뚜렷한 규칙성을 가능하게 하여, 하나의 서사문법을 구성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

Greimas, Algirdas Julien, Narrative grammar: units and levels, *Modern Language Notes*, 86, 1971, p.794.

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드러내는 과정으로서의 구조를 지니는 것이다. 상황을 드러내는 과정으로서의 서사적 구성에서는 이미 제시된 사건과 뒤에 이어지는 다른 사건들 사이에 명백한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그러한 현실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인물로 형상화되지는 않았다. 현실적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 우유부단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주인공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현실 상황을 운명의 탓이라고 돌리지는 않는다.¹¹⁾ 주어진 현실 상황에 순응하면서도 체념하지 않으며, 현실 극복의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는 않아도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아니한다. 예기치 않게 대두되는 사건으로 좌절의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또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그것을 희망의 상황으로 여기고, 자신의 소망을 현실화해 보려고 한다. 하지만, 우발적인 또 다른 사건에 휘말려 좌절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거듭되는 좌절은 작가의 운명론적 인식에 지배된다기보다는, 뜻대로 되지 않는 비정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¹²⁾

이처럼, 이 소설은 ‘희망의 상황과 좌절의 상황’이 순환적으로 지속되는 구조를 지니면서, 또한 ‘열린 결말구조’를 이루고 있다. 주생이 사상병이 들어 결국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다든지, 아니면 고국으로 후송되어 선화와 결혼하게 되었다든가 하는 결말이 없다. 병이 들어 계속 종군하지 못하고 송경에 머물게 된 이후의 이야기는 독자들 각자의

11) 김일렬은 주인공의 의지를 가로막는 현실을 ‘운명의 벽’이라고 하였다. “周生傳小考”, 어문론총, 11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1977.

12) 이채연도 “주인공의 불행은 운명적인 것이기보다는 현실적 목표에 의해 적극적이지 못한 삶의 자세와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 하였다. “〈周生傳〉의 구조와 의미”, 국어국문학연구, 제26집,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89, 121쪽.

것이다. 이처럼 폐쇄나 확정에 의한 닫힌 결말구조보다는 암시나 未定狀態의 개방된 결말구조는 독자의 능동적 역할을 중시한다.¹³⁾ 그런데, 주인공 주생이 고국으로 돌아가 자기의 희망을 성취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결코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력에 맡겨지는 않는다.

가)－나)는 과거에 응시하여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그 좌절의 과정을 보여 주는 단락이다. 다)－라)는 표면적으로 볼 때, 애정 욕구의 추구하고 좌절의 과정으로 보인다. 마)－바)도 애정 갈등으로서 애정의 사회관습적 용인을 얻으려는 욕구와 그 좌절 과정을 보여주는 단락이다. 그런데, 계기적인 행동의 의미를 이렇게 추출할 경우, 지극히 추상적인 차원의 일관성은 확보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논리적인 곤란이 생겨난다. 즉, 사건의 연결에서 논리적 불연속성이 발견된다. 제도권에의 진입 갈등을 보여주는 가)－나)와 애정 성취에 따른 갈등을 보여주는 다)－바)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불연속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인 논의에서 머문다면, 이 소설은 ‘사건의 불연속성’이라는 결점을 지닌 작품으로서, 결과적으로 ‘문제의식 결여’ 내지는 ‘주제의식의 약화’를 초래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이끌어 낼 소지가 있으며, 작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도 없다.

선행 연구들은 작품의 논리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구조적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특히 김일렬¹⁴⁾은 「주생전」을 분석하면서 ‘행복의 추구하고 좌절’을 한 단위로 하는 대등한 비중의 사건이 세 차례 계기적으로 연속되면서 좌절의 심도는 강화되고 있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경이와 삶의 비극적 과정’이 이런 구조가 드러내는 주제라고 했다. 작품 줄거리에 논리적

13) S.리몬 케넌, 앞의 책, 94쪽 참조.

14) 金一烈, 앞의 논문 참조.

질서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그 나름의 구조적 의미를 찾으려고 한 것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 길을 진전된 논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주인공 주생의 의지를 ‘행복의 추구’라고 규정하고, 그 의지를 가로막는 현실을 ‘운명’이라고 단정한 것은 그 적절성에도 불구하고 개념 자체의 지나친 일반성 내지 추상성 때문에 작품의 주제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추상화에 의한 일관성을 주목하면서 표면적으로 불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제도권에의 진입 욕구(가~나)와 애정 욕구(다~바)’가 어떻게 관련되며 전개되는가의 문제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주인공의 표면적 행동양식에서가 아니라 이면적 심리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해명될 때, 이 두 갈등은 별개의 존재가 아닌 하나의 일관된 논리 속의 두 요소라는 점이 설명될 수 있다.

2. 제도권 진입 욕구와 애정 욕구의 관계

주생의 집안은 대대로 錢塘에 살았으나 부친이 蜀州의 別駕라는 벼슬을 하게 되면서 촉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지배계층이긴 해도 한미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나 주생은 어려서부터 聰明英敏하고 시를 잘 지었으며, 태학에 다니면서도 제주와 학문이 남보다 뛰어나 동료들의 추앙을 받았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었다. 능력면에서 이미 밝은 장래가 약속되어 있는 인물인 셈이다. 그러나, 주생은 과거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말았다. 능력이 있는데도 과거시험에 누차 낙방했다는 사실을 통해, 독자는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말해 주리라 기대하게 된다. 능력있는 자를 발탁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가 科擧라면, 제도 자체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었음을 예상하고 능력만으로는 제도권에 진입할 수 없는 부당한 사회였음을 짐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서술 문맥 속에 그러한 현실적 모순을 그리지 아니한다. 그것은 주인공의 현실순응적인 모습을 형상화해 보이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⁵⁾ 주생은 능력있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사회에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하지도 않고, 주어지는 현실 상황에 순응하며 티끌 자욱한 세상에서 逸脫하고자 할 뿐이다.

사람의 세상살이는 마치 티끌이 연약한 풀잎에 깃든 것과 같은데, 어찌 명예에 얽매어 더러운 속세에서 골몰하다가 내 인생을 보낼쏜가.(人生世間如微塵棲弱草耳 胡乃爲名韁所係 汨汨塵土中 以送吾生乎. 351쪽)

과거제도를 통해 양반 관료층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했던 주생이, 거듭되는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과 소외의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작자는 잘못된 사회에 불만을 털어놓고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적극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과거를 포기한 채 逸脫者로서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약한 주인공을 그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를 포기한 직후에 지향되는 주생의 삶은 낭만지향적인 삶처럼 보이지만, 제도권에 진입하여 지배계층으로서의 실질적 특권을 획득하고자 했던 희망의 좌절에서 오는 도피적인 행동양식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극도의 좌절감에서 오는 일종의 방황이며, 현실적 패배감을 잊기 위한 방랑일 따름이라 하겠다. 따라서 주생이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취한 삶의 방향은 “규범적·당위적 삶의 형태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과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¹⁶⁾ 이라거나 “모순된 현실을 박차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보다 적극적인

15) 현실 모순을 문제삼지 않은 현상을 두고 작가의 현실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작자가 왜 현실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16) 이채연은 이런 입장을 작품 해석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앞의 논문 참조.

의지를 보이는 것”¹⁷⁾ 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생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모색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을 털어 “그 중 반으로는 배를 구입하여 강호를 오가며, 나머지 반으로 잡화를 사서 잇속을 취해 생활을 꾸려갔다.”¹⁸⁾고는 하지만, 이것은 극도의 좌절감에서 오는 일시적 방황이며 방랑일 뿐이지, 重商主義의인 삶으로의 의도적 전향을 의미하거나 주인공의 신분적 하락을 강조하려는 요소는 아닌 듯하다.¹⁹⁾ 주생의 상업행위는 유랑생활을 위한 일시적인 생계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아침에는 뭇나라 땅에 저녁이면 楚나라 땅으로, 마음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며 세상의 명리를 잊으려는 유랑생활이 주생의 삶에 있어서 우선하는 목적이며, 상업행위는 그러한 삶을 위한 일시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주생은 과거를 통해 제도권에 진입하기를 갈망하다가 의외로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전전하는 ‘소외된 지식계층의 한 전형’²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권 진출을 갈망하는 주생의 욕구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러한 욕구가 잠재의식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한, 주생의 인생관이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생 배도와와의 결연은 표면적으로 애정 탐닉의 결과이지만, 제도권 편입이라고 하는 주생의 잠재적 욕구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주생은 삶의 구체적 지향점도 없이 유랑을 하던 중 우연히 고향에 들러 기생 배도를 만난다. 배도와의 만남은 애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인공 스스로 만들어 간 사건이 아니라, 의외로 획득된 희망적 상황이다.

17) 박일웅, “周生傳”, 한국고전소설작품론(김신세 편, 김문당, 1990), 76쪽.

18) “倒篋中有錢百千 以其半買舟 來往江湖 以其半市雜貨 取應以自給”. 임경택 편, 앞의 책, 351쪽. 주생이 상업행위를 했다는 서술은 이것 이외에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는다.

19) 상인으로서 주생의 신분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20) 박일웅, “주생전”, 앞의 책, 75쪽.

배도는 주생의 재주가 뛰어나고 또 주생이 장가를 들지 않았음을 알고는 그에게 머물기를 요청한다. 배도의 求愛 행위 이면에는 주생을 통해 신분적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욕구가 깔려 있다. 배도의 집안은 본래 豪族이었다. 그런데 市舶司 벼슬까지 지낸 바 있는 조부가 죄를 지어 庶人으로 쫓겨난 후로 가계가 빈곤하여졌을 뿐 아니라 부모까지 일찍 죽게 되자, 배도는 기생이 되었다. 상층신분에서 기생의 신분으로 전락하였으니, 그만큼 배도의 신분상승의 욕구는 강렬했을 것이다.

이제 낭군님을 뵈오니, 풍채가 의젓하시고 거동이 활달하며, 재주가 빼어나고 생각이 깊사옵니다. 제 비록 몸은 천하으나, 침식에 모시고 진줄 받들기를 원하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낭군님이 후일에 입신출세하셔서 속히 높은 신분이 되시어 저를 기생의 명부에서 빼 주시와 선조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 주신다면 하는 것뿐입니다. 후일에 비록 낭군님이 저를 버리시어 죽는 날까지 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오며 조금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今見郎君風儀秀朗 才思俊逸 妾雖陋質 願一薦枕席 永奉巾櫛 望郎君他日立身 早登要路 拔妾於妓薄之中 使不忝先人之名 則賤妾之願畢矣 後雖棄妾 終身不見 感恩不暇 其敢怨乎. 353쪽)

배도에게는 애정 성취 욕구보다는 옛 신분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생은, “그것은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대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 어찌 생각이 없겠소.”²¹⁾라고 하며 배도의 제안에 선뜻 응락한다.

주생이 배도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것을, 애욕 성취에 다급한 즉흥적 응대나 위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애욕을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작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배도를 妓籍에서 빼 주겠다는 약속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에 배도를 기적에서 빼

21) 此男子分內事耳 汝縱不言 我豈無情者. 임명덕 편, 앞의 책, 354쪽.

내 줄 만한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배도를 기적에서 빼내는 데는 다시 과거를 보아 벼슬길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의 재주를 인정하는 배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제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와 의지가 주생에게 되살아 났다고 할 수 있다. 배도와의 만남이 주생의 제도권 편입 욕구에 다시 불을 붙인 계기가 된 것이다.²²⁾

제도권 진입의 실패에 따른 자기상실의식이 자신의 존재 확인이라 할 수 있는 애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나지만, 주생은 제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꿈을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배도와의 애정을 성취하는 일은 곧 제도권 편입의 발판이 된다. 애정 성취와 제도권 편입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 일이라면, 주생에게는 조금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배도와 굳은 언약을 하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배도를 멀리하고 또 다른 여인 선화를 흠모하게 되는 사건은 충분한 개연성을 획득하게 된다.

주생은 배도가 드나드는 노승상택의 딸 선화를 보는 순간 선화에 대한 애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러한 이기적 행위에는 美色에 대한 육욕적 충동과 지위상승에 대한 욕구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즉, 선화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탐닉과 함께 내면심리에 잠재되어 있는 입신출세욕이 주생을 또 하나의 애정갈등에 휩싸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명문거족의 딸 선화와 애정관계를 맺는 것은 주생이 자신의 잠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선화와 주생은 형식적인 신분계

22) 文範은 주생과 배도의 만남에는 “탁월한 文才를 지닌 사대부 문인으로서의 자기신분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周生傳」研究”, 嶺南語文學, 제23집(영남어문학회, 1993. 6), 160쪽.

층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문벌의 차이로 실질적으로는 지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화와의 결연은 곧 실질적인 지위 상승을 가져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노승상 부인이 아들 국영의 獨先生으로 초빙함으로써 선화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주생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여기서 이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처음부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선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봄이 다 가도록 만나지도 못했구나.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황하의 물 맑기를 기다리겠는가. 차라리 어둔 밤에 선화 방으로 뛰어드는 게 낫겠다. 일이 성공하면 귀한 몸이 될 것이요, 실패로 돌아가면 죽음을 당한다 해도 좋다. (始吾來此本圖仙花 今芳春已盡 奇遇未成 俟河之清 人壽幾何 不如昏夜唐突 事成爲貴 不成則烹 可也. 357쪽)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선화와의 결연을 성취하는 것 자체가 '귀한 몸'으로서의 실질적 지위상승으로 인식되고 있다. 애정욕구 속에 현실적인 지위 상승의 욕구가 잠재되어 있는 셈이다. 배도와와의 결연이 제도권 진입 욕구를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면, 선화와의 결연은 곧 실질적 지위 상승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생은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화와의 결연은 정당한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문벌의 격차로 인하여 관례적인 혼인 절차를 통해 결연을 성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대였다. 따라서, 詞의 화답을 통한 당사자의 암묵적 합의는 이루어지지만, 越牆의 형식을 통해 그들의 결연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결함은 아직 둘만의 비밀스런 정사에 지나지 않으며, 혼인이라는 사회 관습적인 절차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주인공 주생의

실질적 지위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아니한다. 국영이 병을 얻어 돌연히 죽게 되자 선화와 비밀리에 만나 애정관계를 지속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고, 선화와 주생의 관계를 알게 된 배도까지 傷心 끝에 죽어 버리자 거처할 곳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배도를 의지처로 삼아 立身해 보려는 희망도, 선화와 의 결연을 통해 실질적 지위상승을 꾀하려는 욕구도 좌절되고 마는 것이다.

주생은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떠나자니 선화와 영영 헤어져야 하고, 머물고자 해도 배도와 국영이 죽었으니 의지할 데라곤 없었다. 백 갈래로 생각해 보았으나 한 가지 방책도 얻을 수 없었다. 벌써 날은 흰히 밝아왔다. 주생은 하는수없이 배에 올라 노를 저어 나아갔다. 선화의 집이며 배도의 묘는 불수록 점점 멀어져 갔다. 산굽이를 돌아 강이 굽어진 곳에 이르니 홀연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生達曉沈吟 欲去則仙花永隔 欲留則俳桃國英死 無可聊賴 百爾所思 未得其一 平明 不得已開船進棹 仙花之院 俳桃之塚 看看漸遠 山回江轉 忽已隔矣. 362쪽)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과 두 연인을 동시에 상실해 버린 주생의 두 번째 좌절은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좌절의 상황을 다시 희망적 상황으로 되돌려 놓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는 인물이 장노인이다. 주생은 외척 장노인을 찾아가고, 장노인이 주생의 혼인을 주선하기 때문이다.

장노인 댁에 의탁한 주생은 선화를 잊지 못하는 정 때문에 야위어만 갔고, 선화도 주생을 이별한 후 병이 들었다. 노승상 댁과 평소 긴밀한 관계였던 장노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혼인을 주선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주생은 사회적 관습의 절차를 밟아 선화와의 혼삿날을 정하고,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선화와의 결연을 통해 귀한 몸이 되

졌다는 의식은 여기에 이르러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애정 그 자체가 구현되기를 고대하는 간절함이 사건 진행을 이끌어 가게 된다.

그러나 주인공의 기대감과는 역방향으로, 현실적 상황은 또다시 뒤틀려 나간다. 조선에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어 유격장군의 종군서기로 발탁되기에 이르기 때문이다. 종군서기로 발탁된 것은 주생에게 희망의 상황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건 제도권에 진입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벼슬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생은 굳이 사양한다.²³⁾ 주생에게는 제도권 편입을 통한 지위상승의 욕구보다는 애정에 대한 욕구가 더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도와 결연을 했을 때나 선화를 처음 만날 때는 애정욕구와 지위상승의 욕구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었는데,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종군서기로서 조선 땅까지 원병을 간다는 것은 선화와의 혼인을 늦추게 되고 이별을 장기화하게 되어 그들의 장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던 '제도권 진입과 애정 구현의 문제'가 상충적인 관계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종군서기의 직책을 맡아 조선원병으로 떠나자니 애정 실현이 어렵게 되고, 애정을 실현시키려면 종군서기의 직책을 거절하고 조선으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주생은 갈등의 여지도 없이 후자를 원하지만, 주어진 직책을 거역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선화와 다시 만나 온전한 결합을 이루게 된다는 희망, 혼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간절함이 또 다시 좌절과 허무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조선 원병으로 송경까지 온 주생은 마침내 병까지 들어, 명군이 왜적을 몰아 경상도로 남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종군하지 못하고 송경에

23) 주생의 이름을 이는 어떤 유격장군이 끌어내어 서기의 임무를 맡기자, “주생은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生辭不獲已)고 하였다. 임명덕 편, 앞의 책, 364쪽.

머물고 있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주생에게는 선화와 이별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상황의 서러움과 선화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애절한 염원만이 가득하다. 그러한 심정이 踏沙行이란 詞에 잘 나타나 있다.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 이별의 회포를 토로하기 어려운데,

돌아가는 길러기는 날 어두워 강가 나무에 줄지어 앉았구나.

여창의 희미한 촛불은 이 마음 설레게 하고, 황혼의 빛소리에 건디기 어렵구나.

낭원은 구름에 싸였고 영주는 바다로 막혔으니, 임 있는 곳이 예서 얼마나 되나.

외로운 신세 물 위의 부평초 되어, 하룻밤 홀리홀리 오강으로 가고져.

(隻影無憑 離懷難吐 歸鴻暗暗連江樹 旅窓殘燭已驚心 可堪更聽黃昏雨 閨苑雲迷 瀛洲海阻 玉樓珠箔今何許 孤踪願作水上萍 一夜流向吳江去 (365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생전」은 주어진 문제의 해결 과정으로서의 구조가 아니라 문제 해결과는 뒤틀린 방향으로 새로운 상황이 끝없이 드러나는 과정으로서의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과거응시와 그 거듭된 실패’, ‘배도 및 선화와의 만남과 헤어짐’, ‘선화와의 혼인 약속과 조선 출병’이라는 커다란 세 사건이 주인공의 욕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뒤틀려져 전개된다. 사건을 중심으로 볼 때, 첫째 부분에서는 오직 제도권 진입 갈등만이 존재했으나, 둘째 부분에서는 제도권 진입 욕구는 잠재적인 욕구로 남게 되고 애정 욕구가 점차 표면화되어 나타나며, 그러다가, 셋째 부분에서는 애정 갈등만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제도권에의 진입 욕구가 점차적으로 애정 욕구 쪽으로 전이되어 가고 있는 삶의 변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 현실의 굴레 속에서 제도권 편입의 꿈이 좌절되

고, 그 꿈을 버리지 못한 채 추구하는 사랑마저 쉽사리 성취되지 못하고 마는 한계지배층²⁴⁾의 불운함과 좌절의 과정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제도권 진입의 좌절에서 오는 한계지배층의 소외의식이 점차적으로 애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한 애정 성취의 희망마저 상실되어 가는 과정이 비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작가 권필은 「주생전」을 지을 무렵 소외의식과 고독감, 그리고 애정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다고 하는데²⁵⁾, 이 사실은 작품의 이러한 성격을 더욱 설득력있게 한다. 이로 볼 때, '사회현실의 굴레 속에서 제도권 편입의 꿈을 상실해 가는 한계지배층의 비극적 사랑'이 작품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Ⅲ. 애정 구현의 양상과 의의

1. 애정 구현의 성격과 性모랄

「주생전」에는 제도권 진입 욕구와 애정 욕구이 함께 그려져 있지만, 제도권 진입 욕구가 점차적으로 애정 욕구로 전환되는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간의 애정문제로 작품이 귀결됨으로써 애정소설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작품의 주제는 제도권 진입과 애정 갈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형상화된다. 그런 관계로,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애정의 성격은 특이한 양상을 띠게 되고, 애정 구현 양상도 다른 애정소설과는

24) 한계지배층이란 신분적 측면에서 지배층에 해당하지만, 지배권의 행사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계층으로서, 관료층으로의 진입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陳德奎, “조선후기 정치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정치사적 인식”, 19세기 한국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27~28쪽 참조.

25) 이종묵, “〈주생전〉의 미학과 그 의미”, 관악어문학, 제16집(서울대학교, 국문과, 1991), 175쪽.

다소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주인공 주생이 관계하는 여성은 배도와 선화이다. 첫번째 여성 배도는 기녀이며, 두번째 여성 선화는 지체 높은 名門巨族의 딸이다. 주인공의 표류하는 삶의 역정이 아니라, 인물 관계만을 중심으로 보면, 이들 세 인물이 보여 주는 애정의 삼각관계가 작품의 주된 내용을 장식하고 있다. 여기서 두 여성은 주인공의 방탕한 애정행각이나 여성편력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 아니라, 주인공의 욕구 변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되었다고 보인다.

주생의 첫번째 여성인 배도는 원래 상층 신분의 딸이었고, 주생의 어릴 적 소꿉동무였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기녀의 신분으로 전락한 인물이다. 주생이 고향 전당에 들렀다가 배도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들의 애정관계가 맺어진다.

이들의 애정관계는 주생의 탁월한 재주에 현혹된 배도의 현실적 욕구에서 출발된다. 이성을 그리워하는 정욕이 간절하기도 했지만, 배도의 구애행위 이면에는 뚜렷한 목적성이 있다. 구애 행위에 있어서 배도가 주생보다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분이 기녀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신분상승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인다. 배도는 장차 입신출세할 것으로 믿어지는 주생을 통해 기녀라는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주생에 대한 성적 충동 속에는 이러한 신분상승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배도는 애정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주생을 순수한 애정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 이해관계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기녀 배도의 성모랄은 철저하게 현실적 利害 관계에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생의 경우는 배도의 성모랄과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주생이 배도의 이러한 구애에 선뜻 응한 것은 배도의 아름다운 자태에 도취된 상태인데다가, 배도를 의지처로 삼아 제도권 편입을 다시 시도해 보고자 하

는 마음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주생의 성모랄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배도와 결연이 순수한 애정의 구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도권 편입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생과 배도의 애정이 비록 일시적인 관계로 끝나긴 하였으나, 기녀와 양반 사이에 존재하는 일시적 향락으로서의 애정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²⁶⁾

주생의 양면적 성 모랄은 두번째 여성인 선화와의 만남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주생이 배도를 멀리하고 선화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서였다. 즉, 선화는 미모에 있어 배도와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고, 지체높은 집안의 딸인 선화와의 결연은 실질적 신분상승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²⁷⁾ 이처럼 주생의 애정 행위는 순수한 성 자체에 대한 충동 욕구의 실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분상승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생의 애정 행위가 종국적으로 선화와의 순수한 애정을 지향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주목해 두어야 한다.

性愛에 대한 선화의 가치관은 기녀의 신분인 배도나 한계지배층에 속하는 주생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화는 처음부터 異性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주생과 인연을 이루게 된다. 이성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詞 한 수를 주생과 주고받은 후, 주생의 돌연한 舍房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서 선화의 성모랄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성에 대한 세 인물의 가치관은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

26)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배도와 주생의 관계를 양반과 기녀로서의 단순한 향락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27) 배도를 버리고 선화를 사랑하는 주생의 행위를 이기심의 발로라고 본다면, 주생은 남성으로서의 이기심과 '계층적 이기심'을 모두 지닌 셈이다. 박일용은 주생의 이러한 행위가 "계층적 이기성을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박일용, 앞의 논문, 앞의 책, 71쪽.

을 발견할 수 있다. 기녀의 신분인 배도는 성을 신분 회복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한계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주생은 성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순수한 애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양면적 性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지체 높은 집안의 선화는 오직 순수한 애정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작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세 가지 층위의 성모랄을 신분 상승의 욕구와 결부하여 제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애정이 신분의 문제와 관련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성모랄의 유형을 세 가지 층위로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으로써, 이 작품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성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 보도록 하면서 각 계층이 지닌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성모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애정소설이 그렇듯이, 이해 관계가 배제된 순수한 목적으로서의 애정 추구를 작품의 귀결로 삼음으로써, 독자들 앞에 진정한 애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배우자의 선택이 당사자의 좋고 싫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나 신분, 또는 경제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남녀의 결합이 개인의 본성적 애정에 기초하지 않고 현실적인 이해 관계에 기초한 인습에 불과하던 시대에 있어서, 항상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성적 애정에 바탕하는 자유로운 결합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순수한 애정 지향은 당시의 현실적인 성모랄에서 벗어난 낭만주의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만하다. 남녀 주인공들의 애정심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보기도문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애정은 낭만지향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서사문학 속에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재생되는 애정 구현의 일반적 특징이라 여겨진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애정의 발현은 주로 외적 미모에 대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욕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性的 습속의 모든 현상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생은 배도의 아름다운 자태에 즉흥적으로 도취된 데다가, 이성을 그리워하는 배도의 시를 읽고 불같이 타오르는 충동을 느낀다.²⁸⁾ 그래서 밤이 깊어지자 주생은 배도의 방을 찾아가 배도가 草하고 있던 蝶戀花 한 수를 이어짓고 곧바로 굳은 언약을 하게 된다. 애정 구현의 과정이 비교적 즉흥적이면서도 충동적이다. 한 수의 詞에 애정을 갈구하는 서로의 전갈이 함축적 깊이를 간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녀가 서로를 요구하는 정보를 한 수의 사로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求愛를 위한 정보전달의 과정이 시간적으로 그만큼 짧다고 할 수 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애정욕구는 주인공 주생과 선화와의 만남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난다. 주생과 선화의 만남 자체가 외적 아름다움에 대한 즉흥적인 충동에서 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화의 외모에 대한 충동적 매력 때문에 배도와는 굳은 언약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생은 선화에게 빠져들게 된다.

머리채는 곱게 뒤로 닿아내렸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맑은 눈이 살짝 옆으로 흘기는 모습은 흐르는 맑은 물결 위에 가을 빛이 비친 것 같았다. 웃을 때면 애교가 넘쳐, 봄꽃이 아침 이슬을 함빡 머금은 듯했다. 이들 사이에 앉아 있는 배도는 봉황 가운데 있는 까마귀와 소리개, 구슬 가운데 있는 모래와 조약돌일 뿐이었다. (雲鬢結緣 翠臉凝紅 明眸斜睨 若流波之映秋日 巧笑生情 若春花之含曉露 桃坐于其間 不啻若鴉鵲之於鳳凰 砂磔之於珠璣也. 355쪽)

주생이 선화를 처음 본 모습이 관능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다. 선화의 이러한 미모를 보는 순간 주생은 당장이라도 미친듯이 소리치며

28) 生既悅其色 又見其詩 情迷意惑 萬念俱灰, 임명덕 편, 앞의 책, 352쪽.

뛰어들고픈 심정을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²⁹⁾ 육욕적 충동을 느낀다. 이에 따라, 선화와와의 결연과정도 육욕적 충동에 의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詞를 통해 애정을 갈구하는 서로의 감정 전달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있으나,³⁰⁾ 애정 구현을 위한 의사소통의 시간이 극히 짧다고 볼 수 있으니, 이들의 결연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주생이 들어가 잠자리를 같이하였다. 선화는 나이가 어린 데다 약질이어서 정사를 견디내지 못했다. 얇은 구름과 가는 비처럼, 고운 머들과 아리따운 꽃처럼 교태로왔다. 올라가는 부드럽게 속삭였고, 살며시 미소짓다가는 가볍게 신음하기도 했다. 벌이 꽃을 찾아 들고 나비가 꽃을 그리워 하듯, 주생의 정신은 한없이 무르녹았다.(生入與同枕 仙花稚年弱質不堪情事 微雲細雨 柳嫩花嬌 芳啼軟語 淺笑輕聲 生蜂食蝶戀 意迷神融. 358쪽)

주생과 선화의 性愛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다른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지만, 지체높은 집안의 딸 선화가 주인공의 충동적 구애에 즉흥적으로 응하는 것이 특이하다. 남성의 공격적이고 충동적 구애에 여성의 본능적 항거나 저지 행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자의 충동적 욕망에 자신을 내맡길 뿐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보이는 애정구현의 방식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다. 여성의 내면적 인격 따위는 이 작품에서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여성의 외적인 미모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선화와 배도의 여성미가 오직 외적 아름다움만으로 비교되어지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여성의 미는 오직 외모의 아름다움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작품의 밑바탕

29) 魂飛雲外 心在空中 幾欲狂叫突入者數次. 임명덕 편, 앞의 책, 355쪽.

30) 즉, 선화가 蘇子瞻의 賀新郎詞의 한 구절인 “簾外誰來推繡戶 枉教人夢斷瑤臺曲 又却是風敲竹”을 읊고 있는데, 담을 넘어 선화를 훔쳐보던 주생이 “莫言風動竹 直是玉人來”라고 하니, 선화는 못들은 체 잠자리에 들고 주생이 들어가 동침하게 된다.

에 깔려 있는 성모랄이다. 이에 따라, 애정 구현의 양상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강화된 유교도덕은 육체적 사랑이나 충동적 사랑을 억제하고 정신적이고 이성적 사랑을 이끌어 내려고 했겠으나, 아직 이 작품에서는 애정의 육체적이고 충동적 특성을 약화시키거나 제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애정 행위가 사회의 규범이나 습속을 완전히 거부하고 자유롭게 성을 관계하는 보헤미안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선화는 주생과의 결합이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 인정 받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여자의 몸은 수심과 함께 살아갑니다. 만나지 못하면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헤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자의 몸으로서 어찌 근심없이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낭군께서는 규중여인을 범했다는 기롱을 받게 되고 저는 정절을 지키지 못한 질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하루 아침에 정사의 자취가 발각된다면 친척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천대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낭군님과 손잡고 해로하려 하나 어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女子之身 與愁俱生 未相見 願相見 既相見 恐相離 女子一身安住而無愁哉 況郎犯折禮之譏 妾受行露之辱 一朝不幸 情跡敗露 則不容於親戚 見賤於鄉黨 雖欲與郎執手偕老 那可得乎. 358쪽)

당사자만의 자의적인 결합은 불륜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선화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주생도 “나중에 중매의 절차를 밟아 예법대로 그대를 맞이할 것이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마오.”³¹⁾ 라고 하여, 선화의 생각에 동의한다. 주생이나 선화는 그들의 결합이 사회 일

31) 我當終修媒妁之信以禮迎子 子休煩惱. 임명덕 편, 앞의 책, 359쪽.

반의 성모랄을 거역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애정의 당사자들만이 합의한 결합은 당시 사회의 규범 속에서는 이처럼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지니므로, 온전한 결합을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의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인식한다. 문화적인 의식절차인 결혼식을 거치지 않고 이미 성적인 관계를 맺었긴 하지만, 이들은 당대의 성모랄을 철저히 거부하지는 않는다. 애정 구현 방법에 있어서 이미 중세적인 성모랄에서 이탈하기는 해도, 의식적으로는 당시의 규범에 따르려고 하고, 실제로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 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와 같은 중세사회에서는 사랑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의식적 절차가 결혼이다. 사랑이 결혼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결혼이 본성적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제도적 인습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의 성모랄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주인공들은, 이런 중세적 규범이나 제도를 결코 무시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혼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감히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 소설의 이러한 꾸밈을 통해, 진정한 애정이란 남녀간의 본성적 결합이지, 제도적 결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애정의 본질은 본성에 바탕한 성적 결합이며, 결혼과 같은 제도적 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애정 구현 양상의 소설사적 의의

「주생전」의 애정 구현 양상은 당대의 儒敎社會가 요구하는 성모랄에서 상당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분상승의 수단으로서의 애정에서 벗어나 순수한 목적으로서의 애정 구현으로 나아가는 성모랄의 변화, 충동적이며 즉흥적인 성애의 추구, 혼전의 성관계 등이 유교적인

성모랄에서의 일탈적 모습들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드러났듯이, 이러한 일탈적 모습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본성적인 애정을 억압하는 당대의 성모랄이나 제도적 규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있다. 주인공들이 사회적 성모랄로부터의 이탈을 사회적으로 추인받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아, 본성적 애정을 억압하는, 관습적인 성모랄에 적극적인 비판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본성적 애정이 신분상승이라는 현실적 욕구와 전쟁이라는 현실의 장벽에 의해 좌절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개인의 본성적인 애정을 구축하는 제도적인 성모랄에 대한 정면 대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 작품보다 이른 시기의 소설 「李生規牆傳」의 경우도 상황은 유사하다. 이생과 최소저가 결혼전에 주체적 의지로 맺은 성적 결합이 온전하게 지속되는 데 있어서는 당시의 제도적 절차에 따른 혼인의식이 필요했다.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주체적 의지로 사회 일반의 성모랄이나 제도적 규범에 맞서려고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무시하게 된 사회적 관습에 자신들을 맞추려고 한다.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애정 구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객관화하여 문제시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사회관습적 성모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고, 상사병으로 죽어가는 상황 설정을 통해 부모의 허락을 얻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주생전」과 동일하고, 사회관습적인 성모랄에 대한 작가의 인식에 있어서도 두 작품은 다르지 않다.

애정의 본질에 대립되는 당대의 성모랄에 대한 적극적인 항거나 저항을 그려내는 소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성숙된 인식이 이루어져야 가능했다. 「崔陟傳」에서는 주인공들이 중세적 결혼제도의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바탕한 성모랄 자체에 대해서는 저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최척과의 결연에 있어서 옥영과 그 어머니와의 가치관 대립이 그것이다.

본성적 애정을 억압하는 중세사회의 제도나 성모랄의 모순을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소설로는 「相思洞記」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이런 모순을 객관적 사실로 떠올려 문제화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낭만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雲英傳」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비록 한계는 있지만 이 작품은 개인의 본성적 애정을 속박하는 제도적 규범에 정면에서 도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중세적 성모랄을 완전히 거부하고 주체적이고 본성적인 애정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春香傳」은 최고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애정 구현의 양상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타락된 충동으로서의 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모랄의 이러한 성격은 조선조의 유교적인 관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남녀의 자유로운 만남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사랑이 약동하여 육체적인 결합으로 귀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중매인을 통해 전달되는 외적인 모습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사랑보다는 육체적인 충동이 항상 선행하는 것이 애정관계의 필연적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남녀의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이념이 상당히 강화되기 이전에 나타난 「이생규장전」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구애가 서로의 외적 모습만을 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서로를 보는 순간 충동적 욕구를 느끼게 되고, 구애를 위한 구체적인 대화의 시간이 없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詩 한

수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구애를 위한 정보교환의 전부이다. 이런 모습은 「최척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애 과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충동성과 즉흥성은 「주생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애정 구현에 있어서 외적인 모습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함축적인 깊이를 지닌 짧은 시보다는 긴 시간 동안의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 애정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소설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살필 수 있다. 「상사동기」의 경우는 애정 구현을 위한 정보교환이 구체화되고 길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면모를 보이지만, 정신적인 교류를 통한 애정 구현보다는 육체적 결합을 통해 애욕을 성취하려는 데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척전」의 경우는 구애의 정보교환에서 즉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해도 육체적 충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이생규장전」이나 「주생전」에 비해 중세사회의 통념적인 성모랄에 보다 충실하려는 관념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이생규장전」이나 「주생전」에서의 주인공들은 중세사회가 요구하는 성모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혼전의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반해서, 「최척전」에서는 남녀주인공이 중세적인 결혼절차에 충실히 따르면서 결합하는 모습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후대로 갈수록 애정소설은 중세적인 성모랄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문학작품에 있어서도 유교도덕의 간섭이 점차 강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유교적 가치나 도덕관념을 강화하는 데서 성모랄의 관념화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애정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성모랄의 변이와, 이러한 변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작품의 소설사적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IV. 결 론

「주생전」은 제도권 진입에 실패한 한계지배층의 비극적 사랑을 주인공의 표류하는 삶의 과정 속에 형상화해 놓은 작품이다. 이에 따라, 그 삶의 과정 속에는 제도권 진입 욕구와 애정 욕구가 서로 미묘하게 맞물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에서는 신분상승 욕구에만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작품의 특정 부분만을 주목한 것이기에 사건의 논리적 연속성이나 주제를 왜곡시킬 우려가 없지 않았다.

필자는 작품을 객관적으로 독서하는 데 있어서는 주인공의 삶 속에 분출되어 있는 두 가지 갈등의 관계 양상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는 전제 아래, 작품 구성의 연속성과 사건 전개의 개연성을 면밀하게 살펴서 작품의 주제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의 부수적 결과로서 작품에 나타난 성모랄의 성격을 밝히고, 애정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성모랄의 변이를 소설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았다.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구조는, ‘희망과 좌절의 상황’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서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작품 서두에서 제시된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건들이 전개되는 특징을 지닌다.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드러내는 과정으로서의 구조를 지니는 것이다.

상황을 드러내는 과정으로서의 서사적 구성에서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제시된 사건과 뒤에 이어지는 다른 사건들 사이에 명백한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인공 자

신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현실 상황을 운명의 탓이라고 돌리지는 않는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추적할 때, 사건전개상의 개연성은 충분히 드러난다.

둘째, ‘과거응시와 그 거듭된 실패’, ‘배도 및 선화와의 만남과 헤어짐’, ‘선화와의 혼인 약속과 조선 출병’이라는 커다란 세 사건이 나타난다. 첫째 부분에서는 오직 제도권 진입 갈등만이 존재했으나, 둘째 부분에서는 제도권 진입 욕구가 잠재적인 욕구로 남게 되고 애정 욕구가 점차 표면화되어 있었으며, 셋째 부분에서는 제도권 진입 욕구가 사라지고 애정 갈등만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제도권에의 진입 욕구가 점차적으로 애정 욕구 쪽으로 전이되어 가고 있는 삶의 변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 현실의 굴레 속에서 제도권 편입의 꿈이 좌절되고, 그 꿈을 버리지 못한 채 추구하는 사랑마저 쉽사리 성취되지 못하고 마는 한계지배층의 불운함과 좌절의 과정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제도권 진입의 좌절에서 오는 한계지배층의 소외의식이 점차적으로 애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한 애정 성취의 희망마저 상실되어 가는 과정이 비극적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이에 따라, ‘사회현실의 굴레 속에서 제도권 편입의 꿈을 상실해 가는 한계지배층의 비극적 사랑’이 작품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권필은 「주생전」을 지을 무렵 소외의식과 고독감, 그리고 애정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다고 하는데, 작가의 이러한 삶이 작품에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性에 대한 가치관은 인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녀의 신분인 배도는 성을 신분 회복의 수단으로 삼고 있고, 한계지배층인 주생은 성을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순수한 애정 성취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양면적 性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며, 지체 높은 집안의 선화는 오직 순수한 애정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성 모랄을 신분상승의 욕구와 결부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성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따져 보도록 하면서, 진정한 성모랄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또한, 애정 구현 양상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조선시대에 이르러 강화된 유교도덕은 육체적 사랑이나 충동적 사랑을 억제하고 정신적이고 理性的 사랑을 이끌어 내려고 했겠으나, 아직 이 작품에서는 애정의 육체적이고 충동적 특성을 약화시키거나 제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중세적 규범이나 제도를 결코 무시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도, 혼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감히 육체적 관계를 맺도록 한 꾸밈은, 곧 제도적 결합이 아니라 본성에 바탕한 성적 결합이 진정한 애정의 본질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넷째, 애정 구현 양상은 당대의 儒敎社會가 요구하는 성모랄에서 상당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본성적인 애정을 억압하는 당대의 성모랄이나 제도적 규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삼지는 않고 있다. 애정의 본질에 대립되는 당대의 성모랄에 대한 적극적인 항거나 저항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소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일반의 보다 성숙된 인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애정 구현의 양상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정신적인 사랑이 약동하여 육체적인 결합으로 귀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조선조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애정관계의 필연적 형태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남녀의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결합을 요구하고 있어서, 후대의 소설로 갈수록 이러한 성격을 청산하고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리라 여겨진다.

애정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의미화되는 혼전의 육체 관계도 후대의 소설에서는 점차 줄어들고, 중세적 규범인 결혼의식을 거치는 쪽으로 애정 구현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로 볼 때, 후대소설로 갈수록 중세적인 성모랄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 문학작품에 있어서도 유교도덕의 간섭이 갈수록 강화되고, 사회적으로 유교적 가치나 도덕관념을 강화하는 데서 성모랄의 관념화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애정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성모랄의 변이와, 이러한 변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작품의 소설사적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가능성만 언급하는 데서 그치기로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는 미루어 둔다.